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신실한 소망 안에 담대한 확신 [히브리서 12:18-2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8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19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해의 결심은 세우셨습니까? 삶은 재정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믿음도 역시 수고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되십니까? 우리는 그 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19).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단 한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이 그 분께 전가됐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장들과 희생 제물들 그리고 성전과 휘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들 대신할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의 동행에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그 동행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모든 시간을 통틀어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그 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친구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죄악들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히브리서 10:21). 제사장이란 단어는 '다리 건설자' 라는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지으셔서 연결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두 번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확신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 완벽하진 않아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분께서는 그의 완벽한 힘으로 더 큰 확신을 다져다 주십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을 붙들시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습니까? 부르심: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망에 관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은 존중되지 않고, 그 분의 말씀을 무시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은 말씀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분의 사랑, 그 분의 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그 분만이 모든 인류의 해답이 됩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 대신 멸시, 천대 그리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그 분의 하신 약속에 대해 신실하십니다.